광주 R&D특구 中·日 참여 추진

市 '개방형 국제화 특구' 육성

업무협약차 투자유치단 방문

광주시가 광주연구개발(R&D)특구를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개방형 국제화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대학 간, 연구기관 간, 특구 간 업무협약 체결에 나선다.

광주R&D특구를 대구·대전특구와 차별화하고 한·중·일 연구인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꾀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7일 "강운태 광주시장 등 20명의 투자유치단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기타규슈와 나고야, 중국 다롄과 베이징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한국광기술원·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관계자가 동행하며, 이들은 각 방문지역의 대학·연구기관·특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다.

먼저 전남대 로봇연구소는 기타규슈의 규슈대 의료과학연구소, 나고야대학 기계과학과 등과 의료로봇 연구 관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재단법인 기타규슈 산업학술추진기구(FAIS) 및 중국 다롄의 금주신구(金州新區)와 각각 MOU를 체결한다.

또 한국광기술원은 나고야의 중부대학과 광학렌즈 초정밀 가공 분야, 고등광기술연구소는 중국 IOP와 고출력레이저 분야 등에서 공동협력연구에 나서게 된다.

광주시는 또 기타규슈와 다롄에서 각각 광주 R&D특구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신규개발지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광주R&D특구 내 신규 개발지는 첨단 3지구와 신룡지구 등 717만㎡로 각각 2014년과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해외방문을 통해 광주R&D특구의 조성 방향이 좀 더 확고해지고 대구와 대전특구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게 될 것"이라며 "MOU 체결 뒤에도 지속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해 조만간 특구 내 들어설 콘텐츠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제역 살처분 가축 영혼 위로

7일 오후 광주 북구 용두동 '선 뮤지엄' 명상학교에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시민들이 분향소에 마련된 소와 돼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사르고 있다. 분향소는 오는 28일까지 운영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 원전, 전남은 비켜갈듯

고흥·해남군의회 반대 입장 공식 표명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4곳에 포함된 고흥과 해남군 의회가 원전 유치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사실상 전남지역에 새 원전 유치는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고흥군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원전유치는 세제혜택, 지원사업 등 재정적 인센티브,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기대되지만, 고흥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가꾸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남군은 지난달 20일 군수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군민 의견을 들어 원전 유치를 하지 않기로 한 군의회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 원전을 유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전 유치 신청 시 지방 의회 동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들 두 자치단체의 원전 유치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고흥과 해남은 지난 1980년대에도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됐으나 원전 유치 찬반 갈등을 겪다가 결국 원전 유치를 거부한 바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해남과 고흥,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4곳을 발표했고 이후 해남과 고흥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찬성 측과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반대 측 간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두 자치단체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극렬한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주민 뜻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가치보다는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때처럼 찬반 논란이 불러올 갈등과 대립이 지역을 파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유치 반대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또 영광에 6기의 원전이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원전 확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 접수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전남지역 두 자치단체가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원전 유치에 적극적인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원전이 건설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광주 '택시 6부제' 3월 시행 전망

30여차례 노사정회의 사측반대로 난항… 市 "서비스 향상위해 서두르겠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난항을 겪고 있는 '택시 6부제'(5일 운행 후 하루 휴무) 도입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아 시행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부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노사정 회의가 열렸지만 사업자 측이 경영손실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광주시는 "이번 주 내 신임 광주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과 노조 대표, 광주시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갖고 지난해 말부터 잠정 중단됐던 6부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업체 대표로 협상에 참여했던 광주법인택시사업조합의 이사장이 바뀌면서 노사정 협의가 잠정중단된 바 있다.

광주시는 강 시장이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다음달 1일부터 택시 6부제 시행하도록 지시한 이상 지지부진 상태에 있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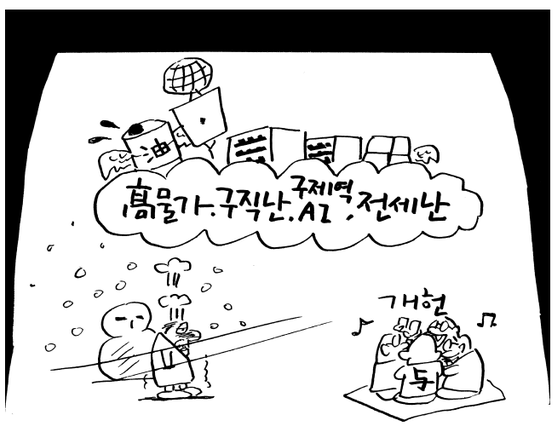
6부제 도입이 택시기사의 친절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업체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노조 역시 현행 8부제(7일 운행 후 하루 휴무)는 택시 근로자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즉각적인 6부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광주지역본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 법인택시 6부제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적인 6부제 시행을 촉구하는 등 광주시와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낮日만평

- 김종두



어째서 우리 政治는 요모양인지…

목포대, 독일에 해상풍력허브센터 설립

목포대는 한국과학기술원 유럽연구소(KIST-Europe, 독일 자를란트주(州) 대학 소재) 내에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목포대 해상풍력 허브(Hub) 센터'를 설립했다고 7일 밝혔다.

허브 센터 설립으로 EU~대한민국의 국제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외국 인턴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목포대 관계자는 "목포대 해상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인재양성센터(OWEC)의 센터장 김일수 교수가 작년 11월 '유럽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이란 특강을 계기로 연구소 내 분원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최근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생물안전 3등급 시설 허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새로 설치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은 국내 최고 등급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구원 지하 1층에 연면적 264.2㎡ 규모로 마련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고로쇠 수액 맛보세요

장성·광양 등서 채취 시작

전남도는 지난 5일 장성·광양·담양을 시작으로 6일 구례, 8일 화순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도내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은 순천 조계산, 광양 백운산, 담양 추월산, 곡성 봉두산, 구례 지리산, 고흥 팔영산, 화순 모후산, 장성 백암산 등으로 이 일대 2만860ha에 62만9000그루가 분포돼 있다. 이중 올해 채취허가 면적은 3089ha 12만2000그루에서 122만3000ℓ의 수액을 채취한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22% 규모로 이달 초부터 채취에 들어가 다음달 말까지 생산한다.

고로쇠와 관련된 주요 행사도 이어져 제31회 약수제(3월 5일)가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열리며 산수유 축제기간에는 고로쇠수액 시음회(3월 19~21일·구례 산동면 일원), 제5회 백양 고로쇠축제(3월 12~13일·장성 북하면 일원) 등이 예정돼 있다.

농가소득은 고로쇠 직접 판매 소득 32억여원과 함께 민박·향토음식 판매 등 5억여원 이상의 농외소득도 기대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내달 설립

대표이사·사무총장 공모

광주여성재단이 내달 설립돼 본격 운영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비로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내달 설립되는 광주여성재단의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을 이달 내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여성재단은 정책연구·교류협력·성 평등교육·경영지원 등 4개 분과에 대표이사와 사무총장, 실장(1명), 팀장(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오는 11일 광주시청에서 여성과 경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티몽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은 애플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청소 및 건축 종합 관리
저희 (주)대진용역은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업체만의 체계적인 업무처리 시스템과 각 서비스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원하신다면 (주)대진용역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대진용역의 서비스
청소용역
입주청소, 준공청소, 상주청소
소독용역
소독 및 바퀴벌레·개미·해충 박멸
경비용역
시설경비, 경호업무
심부름
잔심부름, 개인업무
대리운전
장거리 운행 및 일, 월 대리운전
(주) 대진용역
TEL 062)372-2332, 371-6644 FAX 062)376-8949
경비원 및 청소원, 운전기사 모집 및 알선 해 드립니다.
모집인원 : 경비인원 00명, 청소인원 00명, 운전기사 00명

병의원 분양 임대
개원동업 · 상담환영
■ 건물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 건물개요 :
• 건물연면적 : 2,721평(지하2층 / 지상8층)
• 엘리베이터 : 2대(대형 1대)
• 주차장 : 70대(법정 42대)
3면 코너건물
■ 특 징 :
• 오산, 화성시 (인구 70만명) : 출산율 및 인구증가율 전국 1위
•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 30분 소요
• 용서고속도로 (양재~오산) : 30분 소요
• 지하고속전철 확정 (강남 삼성역 ~ 동동탄) : 18분 소요예정
•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2,400세대 정문 위치
• 오산시 최고급 건물 ⇒ 오산 I / C : 3분
⇒ 전철역, 터미널 : 도보 5분
■ 건물입점현황

8F	교 회							청호나이스	전용50평	
7F	관세법인			메리츠화재보험				하늘교육학원		
6F	교 보 생 명							롯데손해보험		
5F	아 발 론 어 학 원									
4F	부부치과			참 정 형 외 과						
3F	전용47평			전용50평		전용23평		전용23평	전용50평	
2F	국민은행					M&D학원			부산아구찜	
1F	치킨나라	전용12평	전용18평	김밥나라	전용13평	전용12평	국민은행	전용12평	미가행복	천지약국	오리명가
B1	주 차 장									
B2	주 차 장									

연락처 : 011-288-1132 대표 김 용 철
인테리어 지원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재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뺨치는데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주니 창랑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가슴과 신체부위가 섬세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으니 성욕을 해서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 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팔로 불티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4114-09 우희정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1577-4101
010-8558-4114, 010-8952-4114